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추석 가정예배

인도자 : 가족 중

예배의기원 인도자

전능하신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다 같이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대표기도 가족 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추석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을 나누어 이 자리가 풍성하게 하시고, 슬픈 일은 함께 품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릴 붙들어 주셨고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시편 128편 1~6절 인도자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말씀나눔 노래할 수 있는 은혜 인도자

오늘은 민족 고유의 추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길 축복을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로 세워나가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각자 열심히 일상을 살고 명절에 모인 가정의 모습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에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일상을 열심히 살고 추석에 열매를 추수하듯이 일상의 열매를 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일상의 보상이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열매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둘째, 가족이 함께 둘러앉은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은 가족을 서로 다른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마다 열매들이 서로 다른 것처럼 함께 둘러앉을 때 삶과 신앙 속에 맺어진 다양한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각자의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기뻐하며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열매가 적을지라도 언젠가 풍성함으로 함께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응원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추석 가정예배

가족들과 행복한 추석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청주제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3번길 15 (구. 남문로 1가 154번지)

(043) 256 - 3817 ~ 8

셋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을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질곡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루살렘의 회복과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안에 거하면 앞으로도 우리 가정의 앞길에 평화를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열매 맺는 은혜, 함께 나누는 은혜, 앞으로 주실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가 기쁨의 노래가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도 시편의 말씀처럼 그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는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301장(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같 이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행통하게 하시네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애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절.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 기도 문 다 같 이

가족별 나눔의 시간 ... 감사한 것, 미안한 것, 기도제목 등... 다 같 이